수변공간으로 변한 지금의 수성못은 인체는 물론 정신적 기(氣)를 충전해 주는 또 다른 명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성들에 생기 불어넣는 氣의 명당
지금은 정신적 氣를 충전하는 명당

#1. '여성 생식기 형상' 등 물형론이 주(主)가 되어서는 안돼

수성못의 풍수를 말하려면 수성못을 직시하고 그 장소가 지닌 기(氣)의 특성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수성못과 연관된 풍수설은 하나같이 용지봉(龍池峰)이나 법이산(法伊山)을 풍수 물형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수성못은 지산 · 범물 주택지구의 명당수'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끼워 넣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수성못 자체의 풍수 본질이 아니다. 달을 보라면 달을 직시해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본 꼴이다.

게다가 그 물형론적 해석이라는 것도 기껏해야 범물동 갈멜산기도원 뒷산 용지봉이 여자의 생식기를 닮아서 속칭 '보지산'으로 불리고 있다든가, 혹은 '원래 대구가 우리나라의 어머니 품과 같은 땅이고 그 중에서도 법이산이 자궁의 위치인데, 높지도 웅장하지도 않은 그 산에 봉수대와 기우단이 설치되었던 것은 불을 지펴 어머니의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의미가

수성못의 위성사진. 풍수지리적으로도 수성못은 기(氣)를 불어넣어 주는 명당에 해당한다.

함축되어 있다' 는 등의 허접스러운 잡설만 늘어놓고 있다.

수성못을 감싸고 있는 산들의 모양새가 하나같이 여자의 생식기와 같은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고여 있는 수성못의 물이 상징하는 바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게 아닌가.

후자의 풍수설은 1966년에 달성공원에 있던 국조단군성전이 법이산 중턱으로 옮겨 지어지면서 나왔을 법하며, 전자는 오랜 침식을 받아 완만한 곡선에 물이 흐르는 계곡이 많은 우리나라 산지 특성상 그 물상(物像)이 여성의 음부를 닮은 곳이 유달리 많다보니 그 같은 말이 생겼을 법하다. 하기야 '여근(女根)' 이니 '자궁' 이니 하면서도 그나마 바로 대놓고 수성못을 노골적으로 '옥문지(玉門池)' 에 비정(比定)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주의 여근곡이나 원주의 서곡저수지 같은 곳에 가보면 아예 돌이나 나무로 된 대형 남근석을 만들어 놓고, 여근 지세의 왕성한 음기를 중화시키기 위해 그런 비보책(裨補策)을 썼다는 황당한 얘기를 펼치는데, 기실 그것은 왜곡될 대로 왜곡된 한국 풍수의 암울한 한 단면일 따름이다.

#2. 풍수의 본령인 기(氣)에 의미를 두고 해석해야

전통풍수 이론 중에 물형론(형국론이라고도 함)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다. 땅의 생김새를 사람이나 동·식물, 물건이나 문자 등에 비유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길한 기운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일종의 풍수 술법이다. 일반인에게 풍수 지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지만 그 술법이 끼치는 폐단이 적지 않다.

풍수의 본령은 터 자체의 기(氣)나 기운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데 있는 것이지 어떤 물형에 빗대어 그 기운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수요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풍수 현장에서 그런 형이상학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인 해석이 가끔 필요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물형론이 주

(主)가 되어 버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풍수해석이 종(從)이 된다면,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한낱 사이비풍수에 불과할 수 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氣)는 결코 그런 형이상학적이거나 의미부여론적인 음기(淫氣)와 같은 기가 아니다. 사람의 몸에 기가 있듯이 땅에도 기가 있다. 대륙에도 기가 있고 바다에도 기가 있다. 법이산에도 기가 있고 수성못에도 기가 있다. 수기(水氣)도 있고 수기(樹氣)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수성못을 한 바퀴 돌 때는 못물의 기와 교감하고, 법이산에 올라가서는 나무와 풀과 돌과 흙으로 된 산의 기와 교감한다. 세상만물은 기가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되며, 그런 작용을 하는 기가 없는 곳은 없다. 즉 무처부재(無處不在)다. 대구시내의 그 어떤 곳에도 기는 다 있다. 다만 기의 특성이 장소마다 다를 뿐이다. 바로 그런 기의 장소적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풍수인 것이다.

#3. 수성못의 관개용수가 수성들에 생기를 넣는 '기(氣)의 명당'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축조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드넓은 수성 들판의 옥토는 자주 홍수와 가뭄 피해를 입었던 모양이다. 홍수를 막는 것은 치수(治水)요, 관개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이수(利水)이니 그야말로 그 못이 만들어짐으로써 수성평야는 매년 가을 황금들판을 이룰 수 있었던 게다.

하지만 지금은 그 넓던 들에 주택과 상가와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시가지화되고 수성못 자체도 주로 시민의 휴양지 내지 유원지 역할을 하는 친수(親水)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명소로 변모했다. 하기야 태곳적부터 변역(變易)과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철리(哲理)를 벗어난 실체가 이 세상 그

1960년대 수성못과 수성들의 모습. 일제강점기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수성못은 광활한 수성들에 물을 적시고 생기를 갖게 하는 기(氣)의 명당이다.

어디에도 없었을 것인즉 수성못의 그런 변신인들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수성못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풍수와 실질적인 인연을 맺었다고 봐야 한다. 왜일까. 풍수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 '기(氣)' 인데, 수성못에서 공급되는 관개용수가 넓은 수성들의 토양을 적셔 흙속에 수분이 갈무리되는 순간부터 그 땅이 생기를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풍수의 어원은 '장풍득수(藏風得水)' 로, 바람을 가두고 물(수분)을 얻는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풍수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방풍(防風)의 뜻을 지닌 장풍이고, 명당 앞쪽을 흐르는 냇물이나 강물 혹은 호수가 있다는 뜻의 득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때 말하는 바람은 기압 차이로 인한 대기의 이동, 즉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바람(wind)이 아니며, 물 또한 냇물이나 강물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water)이 아니다.

예컨대 사방이 산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분지 안에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땅이 날숨을 내쉬면 그것이 곧 '풍(風)' 이요, 그때 분지 가장자리의 산(四神砂)들이 혹여 분지 밖으로부터 불어올 수도 있는 바람을 차단해 주어 그 풍이 흩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흙속의 수분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그것이 곧 '수(水)' 인 것이다.

산이 없는 몽골의 대평원 같은 경우 강한 바람이 지표면을 훑듯이 쓸고 가면 땅속의 수분이 함께 증발해 버린다. 소위 '기(氣)가 빠져 버린' 그런 땅에는 수목들이 생장하지 못함은 물론 농사는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다.

이쯤 되면 눈치 빠른 독자는 '명당이란 결국 인체의 건강은 물론 여타 동식물들이 태어나 자라는 데 아주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갖춘 터를 뜻한다' 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챌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기' 운용 철학이랄 수 있는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농경에 적합한 농사철(시간)에 수성평야는 수성못물을 공급받으면서 천수답이 아닌 가뭄을 능히 극복해 내는 옥답(공간)으로 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논은 흙 속의 수분(혹은 氣)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기에 항상 생기를 품고 있었다. 들판의 벼는 햇볕을 통해 천기를 흡수하고, 적당한 수분을 머금은 흙 기운(地氣)을 받아들이면서 무럭무럭 자라나 알차게 영글었을 것이다.

사람의 몸인들 그런 땅의 생기 유지 원리와 무엇이 다를쏜가. 우리 인간도 공기(天氣)호흡 65%와 곡물(地氣)섭취 35%로 생존한다. 그럼에도 그 누가 예전의 확 트인 수성들판을 기가 흩어지는 곳, 즉 산기처(散氣處)라 하여 주택지로 꺼려지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수성들이 논으로도 이용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무릇 그 모든 땅이 보다 유관적합하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일종의 풍수 단견이었음에 틀림없다.

#4. 수변공간으로 변한 지금은 정신적 氣 충전의 명당

논벼의 생명 원기 역할을 했던 수성못물의 그런 직접적인 풍수 기능은 이제는 우리의 몸을 지향한다. 호수는 특유의 온도조절 기능으로 여름에는 공기를 서늘하게 하고, 겨울에는 온기를 보존하며, 수분을 증발시켜 습도까지 조절한다. 특히 산을 끼고 있는 수성못과 같은 수변공간에는 '공기 속의 산소 알갱이' 또는 '공기 속의 비타민' 이라 불리는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풍부하다. 몸에 흡수된 음이온은 사람 몸속에서 환원이라는 작용을 하며, 혈액 속에 있는 피로물질인 활성산소를 없애 준다. 그래서 산속을 걸어 다니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음이온은 호흡을 통해 15% 정도 흡수되지만, 85%는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된다.

혹자는 여기에서 수성못물을 '고인 물'로 단정 짓고 그 '탁함'을 염려할지 모르지만, 이미 낙동강 및 금호강, 신천 등과 통수되고 있는 수성못은 오래 전부터 달구벌의 심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즉 수성못을 가득 채운 생명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어천에 의도적으로 방류되어 그 생기가 북쪽 시가지로 넓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풍수이론에서는 '땅속의 지기가 물을 만날 때 그 흐름을 멈춘다'고 하는 이른바 '계수즉지(界水則止)'의 논리를 펴지만 물 자체가 기체, 액체, 고체로 끝없이 순환하는 기 덩어리일뿐더러 주로 수분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언제 어디에서든 물과 직접적으로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도 수분이 있음), 굳이 흙이라는 매체를 통한 지기 수용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또 수성못 둑에 서서 이토록 휑하게 열려 있는 곳을 어찌 명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 또한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수성못은 개방적 공간이다. 못 둑에 서서 사방을 둘러봐도 삼면이 트였고, 법이산 능선에 올라가 내려다봐도 확 트인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런 공간은 달구벌 대분지 안에서, 그것도 빌딩 숲에 갇혀서 타인과 부대끼며 생활해 가는 대구시민들에게는 갑갑한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치유의 명소가 될 수 있다.

어느 정신의학자의 말마따나 선천적 요인 이외에도 오늘날 대도시의 각종 환경 스트레스로 인한 사람들의 정신과적 병의 발병률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수성못물과 법이산 소나무숲이 베풀어 주는 음이온과 피톤치드는 대구시민의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수성못 둑과 법이산 능선에서 내려다보는 시원한 조망은 억눌린 심적 스트레스를 일거에 날려 버리는 정신적 '기 충전'의 또 다른 명당 역할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현대인, 특히 도시인은 지식으로 포장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자연과 단절시키고 있지만, 자연은 과학의 잣대로 재기에는 불가능한 생명현상의 장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교육을 통해 똑똑해지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후손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이번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수성못을 돌아보고, '공자를 롤모델로 삼는다'는 뜻을 지닌 법니산(法尼山: 법이산의 옳은 명칭)에 올라 달구벌을 스쳐간 옛 의인들의 어진(仁) 삶을 되돌아보며(省), 그 '인문의 향기'에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수성못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법니산 능선의 한 전망 좋은 터에 '성인루(省仁樓)'라는 현판을 건 멋들어진 누각 하나가 세워질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